

#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1. 다시 말씀 앞에 (Reconfirm)
2. 다시 교회로 (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사순절 묵상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옵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  
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42:1-3)

# 기도가 먼저라!

### 제4대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6시, 웨스트민스터홀

## 2024 청년부 필리핀비전트립 선교보고

### 오늘 찬양예배 시

교회의 지원과 성도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  
로 2024 청년부 필리핀비전트립팀(팀장:유충  
기 장로)이 지난 2월 8일(목)부터 13일(화)까  
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시간에 간단한 선교보고와 조재석 성도

의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8층 만나홀  
에서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가질 예정이었던 상  
반기 장학금 수여식은 다음 주일인 3월 3일 찬  
양예배 시간에 갖습니다.

## 2024 겨울성경학교·수련회

영·유아부, 유치부, 유년부:오늘

부서	주제	주제 말씀	일정	장소
영·유아부	나는 믿습니다-사도신경	롬 10:9-10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유치부	뜻을 세운 아이들	롬 12:2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유년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로마서 12:1-2	2월 24일(토)-25일(주일)	서울교회
고등부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고등부	히 11:1-2	3월 1일(금)-2일(토)	서울교회

### 지난주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3부 예배 시 7교구 임종현 안수집사·김양지  
집사의 아들 임원준의 첫 교회 출석을 축하하는 기도 시  
간을 가졌습니다.



-교육부실, 소망부실 마루 보수-

이재윤, 이강전, 김광래 안수집사께서 지난 2월 13  
일(화), 7층 교육부실과 1층 소망부실의 마루 보  
수를 위해 큰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세 분 집사님  
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1가정1선교사 후원

김형상·최금숙(1) 정인건·남영주(1/2구좌)  
이태승·정진영(2)

### 농어촌100교회 후원자

정인건·남영주(1/2구좌)

### Vision2030 후원자

홍창훈·박래경(1)

###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  
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  
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10-3344-6400

- 기도 대상자들

오원준 김정현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준현 김예준 김재용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김정규 소령



###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1-6)



손달익 위임목사

모든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살아도 인간은 만족과 행복을 누리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작가 헤르만 헤세는 '그의 작품에서 받기만 좋아하는 이기적 인간보다 베풀기를 좋아하는 헌신적 인간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삶이 행복하지 아닌지를 수치로 표시하는 행복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3위이며 세계은행의 국가별 GDP는 10위인데 행복지수는 50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국 행복 만족도가 외형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만은 아님을 보여 줍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개인적으로 만족이 없으면 행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일찍 깨닫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가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다윗입니다. 그의 인생은 결코 평화롭거나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즉위하기까지의 긴 세월 동안 사울로부터 끝없는 견제와 박해를 받아야 했고 여러 번 암살의 위기를 넘겨야 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평생 전쟁을 하며 매일을 긴장 속에 살면서 부하와 왕자들의 권력 다툼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의 말미에 '내 평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 1.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흔히 우리는 다윗을 뛰어난 전쟁 영웅이라거나 훌륭한 시인으로, 또는 탁월한 정치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인간적 요소들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진 내 신분이나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것은 유목민 특유의 표현이었습니다. 족장 야곱은 그의 모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일컬어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말에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는 개인적인 깊은 관계가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요 10:3). 하나님께서 내 목자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이시며 나와 개인적 관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매우 분명하게 주장하십니다.(사 43:1)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늘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위기 때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의 개인적 만남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갈 길을 발견했습니다.(행 18:9-10) 그는 생애의 큰 어려움의 순간마다 은밀히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며 사명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무수한 어려움 앞에서도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 2. 목자가 베푸시는 은혜

목자이신 하나님과 내가 가진 견고한 개인적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축복의 원천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크게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을 위해서는 푸른 풀밭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위해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매사 우리는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시 73:22)라고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의 잘못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면 그가 우리를 바르게 판단하게 하시고 의롭고 복된 길로 견제 하실 것입니다.

2)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은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려서 거인 골리앗과 대결한 것을 시작으로 일생을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3)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후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집에 손님이 오면 보통의 경우 발 씻을 물을 준비합니다. 좀 더 귀한 손님이 오면 음식을 대접하고 아주 귀빈이 오시면 머리에 올리브기름을 발라주면서 환영과 존경을 표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직할 때에도 기름을 머리에 부었습니다. 따라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심은 내게 대한 최고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 3. 영원한 은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6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할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에 과연 우리 몸과 영혼이 온전히 쉴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파라다이스가 있을까요? 온전히 의로운 길로만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천국 길을 걷고 있지만 아직 천국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나그네 순례길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야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쉴 수 있게 되며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온전히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야 우리가 온전히 찬송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하게 되겠지만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끝없는 유혹과 시련이 있습니다. 옛 성도들의 길을 휘방한 것이 모진 박해였다면 오늘 우리 길을 방해하는 것은 세상의 유혹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지금보다 더 심각한 유혹과 도전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에 주력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유혹의 파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과 나와야의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처럼 신뢰와 사랑으로 견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은 오늘도 선한 목자로 함께 계십니다.

세상에서 가진  
신분이나 지위가  
나를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의 행복은 시작됩니다

##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유충기 장로**  
(비전트립팀 팀장)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축복으로 필리핀 바피아시 지역에서의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전 비전트립 팀원들이 무사히 귀국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9년 만에 단기선교를 재개하게 되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모든 과정과 예산을 흔쾌히 승낙해 주신 당회와 물질과 물품으로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우선 지면을 빌어 감사 인사드립니다.

둘째 날, 예배당이 없어 동네의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는 공간은 화장실 등이 낙후되고 급수가 안되는 곳이어서 힘들었지만 야외 체육관에서의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슬리퍼 하나 없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과 온몸은 찢질 얇아 지저분한 옷과 때묻은 손들이었지만 모두가 스스로 먼저 다가와 사랑으로 만져주고 안아주며 놀아주는 팀원들을 볼 때마다 서울교회의 다음 세대에 거는 희망과 기대는 밝았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모든 팀원들은 웃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매일 저녁 큐티 시간 때마다 그날의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들을 때마다 서울교회의 새벽 이슬같이 빛나는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30°를 넘는 땀벌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던 팀원들과 낡은 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벽화작업을 디자인해 주신 유은경 집사님과 도색작업에 참여해 주신 권소희, 송미정 권사님과 청년들. 시궁창같이 물 흐르는 골목길을 지나 영양부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가정애 분유를 전달하고 습기차고 썩은 곰팡이 내음 가득한 시멘트 바닥에서 생활하는 가정애 방문해 기도하며 노래하며 그들을 축복해 주던 우리 서울교회의 청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날 저녁에 가진 현지 청년들인 YOUTH들과의 집회에서는 뜨거운 눈물의 기도와 찬양으로 드리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모두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경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 주일 오전 8시 주일학교 예배와 9시 30분의 주일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분반공부하며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과 주머니를 털어서 비록 동전 하나이지만 두 손으로 정성 다해 헌금드리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동전 두 렵돈 바치던 과부처럼 감동받고 돌아온 저녁 큐티 시간에 말라기서로 더욱 은혜를 나누던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날, 물 부족으로 머리를 감지 못하던 어린이들에게 4시간여를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삼푸로 머리를 감겨주며 온통 시커먼 땀구멍으로 몸이 범벅이 되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며 노래와 춤으로 즐거움을 선사하던 우리의 청년들과 네일아트

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기뻐하는 모습을 어머니 같은 맘으로 흐뭇해 하시던 권사님들, 아이들에게 인생 샷으로 남기기 위해 힘을 쏟던 팀원들과 태어나 침으로 본인의 사진을 보며 기뻐하던 어린이들을 보며 힘든 일도 다 잊었던 봉사자들이 감사의 마음을 담던 그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어느덧 5일 동안 시간의 마지막 시간에는 헤어지기 아쉬워 옷자락 부여잡고 울던 아이들을 남겨두고 오던 저희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팀원들의 변화하는 모습과 감사하는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자족의 마음이 가능했던 건 모든 팀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과 서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모든 교인들이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욱 선교와 전도에 힘쓰는 서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신뢰하여 서울교회의 청년부가 더 나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서울교회의 비전트립이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더욱 발전하고 개선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인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현중필 목사**  
(비전트립팀 지도)

‘선교란 무엇인가?’ 필리핀비전트립을 다녀오며 계속 팀원들과 함께 던졌던 질문입니다. 현지에서 깨닫게 된 것은 ‘현지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 주신 아름다운 천사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계 가운데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비전트립을 떠나기로 하고 청년들과 함께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며 지난 3달 동안 긴장과 기대와 설렘 가운데 힘껏 달려왔습니다. 모든 청년들 뿐만 아니라 온 교회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과 교역자들, 그리고 위임목사님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처음에는 무모해 보이기도 했던 선교의 여정이 점점 구체화 되었고, 드디어 필리핀 땅으로 출발하는 2월 8일(목)의 첫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부터 ‘진정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감격스런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선교의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로 인해 선교사님께 자주 들게 된 한 마디가 있었는데,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집회 장소에서 잘 작동하던 앰프시스템이 갑자기 고장난 것처럼 말을 듣지 않는 등의 정말 당황스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은혜가 넘쳤던 여정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목적인 모든 프로그램과 선교활동을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제이제이라는 9살 짜리 아이입니다. 이요한 형제가 아이의 발에 깊은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데려왔는데, 더러운 맨발에 깊게 패인 상처가 염증 등으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가지고 갔던 응급약품으로 발을 소독해 주었고, 연고를 발라주고 정성을 다해 드레싱을 해준 후 선교사님께서 새

신발을 사서 신겨주고 약을 전달하러 찾아 간 집은 빈민가에서 더 가난한 집으로 도박에 빠진 부모와 다섯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에는 배설물과 오물들이 뒤섞인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이 작은 아이는 동생들의 보호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방문했을 때 다섯 살짜리와 세 살짜리 동생들을 직접 돌보며 밥을 직접 챙겨 먹이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선생님들과 함께 교회 사무실 앞으로 함께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오후 일정은 아이들의 머리를 이 삼푸로 감겨주고 네일아트, 사진찍기 등 이번 비전트립 프로그램중 가장 큰 사역이 계획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님이 그 작은 아이들에게 ‘이 삼푸 데이’라는 말을 전해주자 우울한 표정으로 칭얼대던 아이들이 활짝 웃으며 고민도 하지 않고 선교사님과 저의 손을 잡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동네 아이들에

계 예수님의 사랑과 돌봄이 얼마나 절대적의 미인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커다란 존재가 예수님이시구나!' 현지 선교의 사역에 작은 힘을 보태러 온 우리 팀원들의 수고와 헌신이 여기에 소망없는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희망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삼푸 사역은 시작도 하기 전에 소식을 듣고 몰려온 수백 명의 아이들이 교회 사무실 앞 골목을 가득 메우고 앉아 대기하고 있는 상태

로 시작되었습니다.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그 모든 아이들의 머리를 다 감겨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끗하고 말끔해진 얼굴로 변화되는 아이들의 얼굴과 성도님들이 보내주시는 티셔츠와 수건을 받아 들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게 될 때,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큰 감동과 행복이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전달되었고 힘이 솟아났습니다. 사랑에 목마른 아이들, 우리들의 작은 수고에도 이토록

행복해 하는 아이들의 미소와 웃음소리가 그 골목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위대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축복의 은혜가 우리 팀원들을 통해 더 많은 곳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선교의 모든 사역들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귀한 선교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청년들을 통해 계속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이요한 성도  
(청년부 회장)

오랫동안 기억될 뜨거운 겨울이었습니다. 작년 교회에 회의적인 마음을 가진 저를 하나님이 청년 회장으로 불러주셨을 때 부르심에는 부정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대한 이상적인 생각과 현실 교회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던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수련회부터 지금 선교를 마치고 온 저에 마음을 다시 한번 묻는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입니다.

필리핀 바티야 선교지는 굉장히 열악하였습니다. 마약과 도박중독, 환경이 만들어낸 게으름에 사로잡힌 어른들과, 사랑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가난에 굶주린 아이들에게 우리 선교팀은 그저 친구가 되어주는 일 밖에 할 수 없다는 처음 바티야를 도착했을 때 알았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사역들이 있지만 현지 상황이 단 한 번도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전기 문제, 장비 문제, 인력 문제, 날씨 문제 등 모든 것이 준비한 것조차 뜻대로 되질 않았

습니다. 그때 마음 속에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을 준비했더라면 정말 화도 많고 다름도 많았을 터인데 선교지에선 달리 해결 방법이 없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우리의 계획에 차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매일 밤 팀원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뜨거운 간증과 함께 우리가 사역하러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깊숙이 자리 잡게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팀원들의 고백에는 어느새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제껏 우리 힘으로 조바심을 내던 모습에 대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지의 마음을 그대로 교회로 옮겨가자는 새로운 소망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소망과 도움을 주러 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큰 소망과 비전을 우리 공동체에 주시며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타오르는 태양 아래 페인팅 작업도, 20여 명이 300여 명의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 이 삼푸 사역도, 중노동에 버금가는 장관 깔기 사역

등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모든 사역 가운데 불평이 아닌 웃음이 터져 나왔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웃음과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 주님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선교팀은 가족처럼 사역함으로 현실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닮을 수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끝으로 선교지 일화에서 맨발로 발바닥이 찢어진 채 놀던 제이제이라는 아이가 생각납니다. 그 부모는 깊숙이 폐인 상처가 안 보이는지 아이를 외면했지만 우리는 그 아이가 가장 눈에 밝히고 몇 번을 찾아가 새신을 신겨주며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우리 또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깨진 모습일 때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더욱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밀히 살피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교회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로, 모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를 세워 나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당신의 교회 당신께서 친히 세우소서. 아멘!

# 2024 청년부 필리핀비전트립 회계보고

작성:조재석 회계, 감사:장윤기 안수집사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중보 기도와 넘치도록 채워주신 현금·물품·재능 등 다양한 기부로 '2024 청년부 필리핀비전트립'을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드립니다.

수입 (원)			지출 (원)			
항목	금액	비고	분류	항목	금액	비고
현금 후원	9,960,840	45명	준비비	예방접종	1,836,000	장티푸스, A형간염, 파상풍
커피 모금	3,864,000			여행자보험	351,190	
개인 부담금	7,151,190	17명		기도회	187,880	토요 기도회
목적현금	4,606,301	12명		통신 장비	122,880	WIFI 예그 임대
예산	8,500,000			준비 모임	1,363,860	16회 모임
이자	7,168		부대비용	영상 장비	174,690	영상 저장 장비
* 항공료는 개인 부담				물류 운송	3,398,275	항공 320kg, 해운 420kg
				비상약품	232,050	
			사역비용	현지 숙소/장소	5,000,000	숙박/저녁 모임 장소 사용료
				현지 비용	10,017,500	선교회 활동 비용
				현지 식사	412,866	식사 추가 비용
				현지 이동비	109,000	교통비 추가 비용
				기도 카드	34,590	
				단체티	694,800	현지인 포함 제작 (120벌)
				현수막	54,240	
				네일 아트 물품	40,800	
				문구류	6,000	
				레크레이션 물품	200,140	
				벽화용품	422,405	페인트, 붓 등
				포토부스 물품	21,200	
			이삼푸 물품	206,970		
장판 깔기 추가	66,600	가정 방문 선물 (12가정)				
핸드북 제작	300,000	통신 불가 지역 대응				
현지 후원	음향 및 조명 장비	1,253,363	음향 믹서 및 케이블 후원			
	주일/감사 현금	1,326,520	미화 1,000 달러			
후원 모금		주일 8층 카페	609,680	음료, 라면 및 부자재 비용		
합계	34,089,499		합계		28,443,499	
잔액 : 5,646,000						

- \* 물품 후원 13명, 재능기부 7명이며 의류 약 2,000점, 수건 약 500장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 \* 항공료는 개인 부담(총액 1,190만원) 하였고 개인별 항공권 비용은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 개인 현금 부담금은 인당 40만원 및 여행자 보험료의 합계이며 숙박비·식사비 및 보험료로 사용되었습니다.
- \* 항공료 포함 시 개인 부담금 총액은 약 19,051,190원이며 인당 평균 112만 원입니다.
- \* 잔액은 청년부 비전트립 이름으로 교회에 선교현금 예정입니다.



# 70인전도대 상반기 전도 시작

3월 3일(주일)

겨울을 맞아 잠시 방학에 들어갔던 70인전도대가 3월 3일 주일을 시작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70인전도대 3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3.3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3.6	도르가, 루디아, 뵤뵤
3.10	자원자	바울, 엘리야	3.13	마리아
3.17	자원자	모세	3.20	한나, 에스더(오후 2시-3시)
3.24	자원자	이삭	3.27	리브가
3.31	자원자	스데반회		

# 다락방 리더 교육 개강

3월 6일(수)

겨울을 맞아 잠시 방학에 들어갔던 다락방 리더 교육이 3월 6일 수요일 1부 예배 후 101호에서 개강합니다. 교구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들은 필히 참석 바랍니다. 다락방 개학은 3월 8일(금)입니다.

## ■ 섬기는 분들

- ◇ 부목사 장석남 조원영 김익환 현종필 최중국
- ◇ 전도사 박미라
-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 ◇ 협동목사 양정호
- ◇ 손달익 위임목사
-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연
-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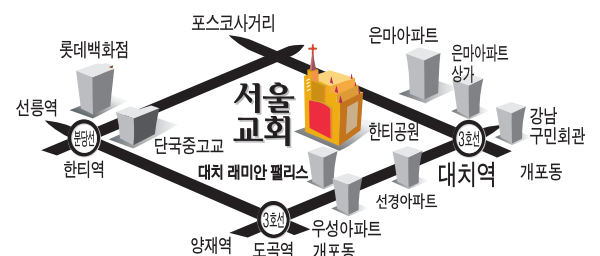
##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101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8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 - 오후 2시	609호

## ■ 서울교회QR코드



## ■ 교회 오시는 길



## 사라의 정원에 놀러 오세요

9층 사라의 정원이 지난 14일(수) 오픈했습니다. 사라의 정원에는 커피, 라떼, 핫초코, 영귤차 등 맛있는 음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POD 이스라엘 한 눈에 알아보기

지난주 순례자에 소개된 '이스라엘 한 눈에 알아보기'는 POD(주문형 도서 출판)로 출간된 도서이므로 주문 후 제작 됩니다. 주문은 교보문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 식사 제공

- 9교구 김찬웅 은퇴안수집사-황재연 은퇴권사 가정 (황재연 은퇴권사 모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교회 제공

##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2월26일	월	민 23-25
2월27일	화	민 26-28
2월28일	수	민 29-31
3월1일	목	민 32-33
3월2일	금	민 34-36
3월3일	토	신 1-2
3월4일	주일	신 3-4

맥체인 성경통독			
출9	눅12	욥27	고전13
출10	눅13	욥28	고전14
출11,12:1-21	눅14	욥29	고전15
출12:22-51	눅15	욥30	고전16
출13	눅16	욥31	고후1
출14	눅17	욥32	고후2
출15	눅18	욥33	고후3

성경일독 진도표와 구약과 신약, 시편을 구속사적으로 연결하여 1년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하는 맥체인방식 성경읽기표를 함께 게재합니다.

##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사순절 둘째 주간에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의 깊은 사랑에 신행일치의 열매로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2. 서울교회 제4대 담임목사 청빙 과정이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진행되게 하시고, 파송 선교지와 농어촌 후원 교회, 비전2030군선교지에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소서.
3. 대한민국이 성경의 비전과 가치관 위에 복음화된 통일국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전세계 모든 곳에 임하게 하소서.